

# 한국 도서관사 연구자료로서의 목간기록 및 서지자료로서의 목간 분석\*

A Study of Wooden Tablets as Historical Data of Korean Library

남 권 희 (Nam, Kwon Hee)\*\*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서지자료로서의 논어 목간과 논어 죽간 |
| 2. 기록자료로서의 문서목간과 색인목간 | 4.1 논어 목간               |
| 2.1 문서목간              | 4.2 논어 죽간               |
| 2.2 색인목간              | 5. 맺음말                  |
| 3. 문서목간의 메타데이터 분석     | <참고문헌>                  |

## < 초 록 >

본 연구는 한국에서 출토된 문서목간 및 논어목간을 기록과 서지자료로서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중국 및 일본과 비교했을 때 현재 한국 출토 목간의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나, 다양한 형태와 분야의 목간이 출현하면서 목간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우수한 정보를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문서목간을 수발문서, 장부문서, 초고 기록문서로 나누어 기록자료로서의 가치를 살펴보고 색인목간이 갖는 가치와 의의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앞서 살펴본 이들 문서들이 갖는 메타데이터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논어목간과 논어죽간을 통해 이미 형태적으로 ‘책’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논어』에 대해 서지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다.

要語: 수발문서, 장부문서, 초고 기록문서, 색인목간, 논어목간, 메타데이터

## <ABSTRACT>

This study bibliographically examines wooden strips documents and Analects of Confucius excavated in Korea. Compared to China and Japan, number of excavated wooden tablets of Korea is very limited. However, with emergence of various types and fields of wooden tablets, it became possible to secure a large amount of historically valuable data. In Chapter 2, the wooden tablets documents were explored as receiving documents, repository documents and draft documents to examine the value of the data as a recorder. In Chapter 3,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index wooden tablets were carefully analyzed. Metadata analysis was also conducted on the documents. In Chapter 4, bibliographical approach was taken to *Analects of Confucius (Noneo)* which already possess an element of a book through the forms of wooden and bamboo tablets.

Key words: Receiving Documents, Metadata, Thesis Wooden Tablets, Index Document Wooden Tablets, Draft Document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1055801).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투고일: 2020년 11월 20일 최초심사일: 2020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24일  
서지학연구, 제84집, 31-56,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4.31>

## 1. 머리말

이 글은 한국 도서관 역사라는 관점에서 출토된 기록 및 서지자료로서의 목간자료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록 매체의 발달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종이부터 광디스크와 같은 데이터 매체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종이라는 매체가 등장하기 이전 동양에서는 대나무나 나무를 쪼개 글씨를 기록한 ‘竹簡’과 ‘木簡’<sup>1)</sup>을 서사 재료로 사용하였다. 대나무로 만든 죽간에 비하여 나무는 견고하고 표면을 깎아내면 기록의 수정과 재사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라는 점에서 경제성에 부합하였다. 따라서 종이가 발명된 이후에도 목간은 오랫동안 값비싼 종이의 수요를 보완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종기와 나무의 병용 시기가 계속되었다.

그동안 출토된 목간 자료로 의학, 약학, 식품학, 산수학 등이 있으며, 아직 여러 가지 주제의 목간의 출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목간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자료이다. 이러한 목간 자료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한국 도서관의 역사나 서지학 분야에 있어서는 그간 고서, 고문서, 금속활자, 책판, 금석문 위주의 연구에 집중되어 목간에 관한 고고학, 역사학 등 발굴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기록물로서 문헌정보학 분야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서관사 연구에 있어서 서책 발달과정에 대한 기록 및 서지자료로서의 목간 자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서관사와 기록학은 물론 서지학적 측면에서 목간 연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기록자료로서의 문서목간과 색인목간

### 2.1 문서목간

한국에서 출토된 목간은 대략 900여 점에 이르며 국내 학자들의 목간에 대한 형태적 분류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sup>2)</sup>

- 
- 1) ‘木牘’이라는 용어는 ‘木簡’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기는 하나 ‘한국목간학회’에서와 같이 학회 이름에 사용되는 ‘木簡’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나무를 이용한 종이 이전의 고대 서사자료’라는 것을 총칭하는데 더욱 부합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관련 학문과 연관된 학회에서도 해당 의미의 자료들을 모두 ‘木簡’으로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논고에서는 ‘木牘’ 대신 ‘木簡’이라고 사용코자 한다.
  - 2) 가야문화재연구소, 『가야이야기 2; 가야의 역사, 그리고 우리』 (창원: 황룡, 2016), 110.

<표 1> 연구자별 목간 분류안

구분	고대목간의 기본 형태						
	편철간	단독간					목간 부스러기 (Ⅵ)
세장형 (Ⅰ, Ⅰa, Ⅴ)		부찰형 (Ⅱ, Ⅱa, Ⅲ, Ⅲa)		다면목간 (Ⅳ, Ⅳa, Ⅳ4, Ⅳ5)	원주형 (Ⅳ0)	방형	
이용현 <sup>4)</sup>	홀형	파입형	꼬리표형	막대형		가로형	
이경섭 <sup>5)</sup>	장방관형	홈형		다면형	원주형	기타 형태	
전덕재 <sup>6)</sup>	단책형(Ⅰ)	홈이 파져 있는 것(Ⅱ)					

본 논문에서는 앞서 밝혔듯이 목간의 서지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간의 형태적 특성에 대한 분류를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다.

<표 1>에서 제시된 분류안 중 목간부스러기의 경우 목간으로 취급하는 학자는 윤선태의 분류가 유일하다. 목간부스러기의 경우 목간의 생성과 수정 및 폐기에 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사료이기 때문에 목간의 한 종류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목간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윤선태의 분류를 참고하여 목간의 형태적 분류에 활용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이들을 용도별로 분류한 윤선태의 분류안<sup>7)</sup>을 참고하여 문서목간을 수발 문서목간, 장부목간, 초고 기록목간<sup>8)</sup>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연구 분석에 포함한 대상자료는 모두 33건으로 각각의 형태와 해석 및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로 도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본고에서는 각각의 건에 대한 상세사항은 생략하고 <표 2>로 대신하였다.

<표 2> 대상 자료의 간략 형태사항

연번	대분류	목간명 (번호)	출토지	크기[cm] (길이*너비*두께)	목간의 형태	용도
1	수발 문서	1호	안압지	31.8*2.8*1.5	4면목간	공문서
2		148번	월성해자	20.8*3.4	원주형	공문서
3		149번		19.0*1.2*1.2	4면목간	공문서
4		153번		24.4*5.1*4.0	원주형	공문서
5		신2호		19.2*3.9*0.8	부찰형	공문서
6		신3호		25.9*2.5*2.2	4면목간	공문서
7		신4호	15.0*2.1*2.2	4면목간	공문서	
8		221번	성산산성	25.0*3.4*2.8	4면목간	공문서
9		235번		34.4*1.0*1.9	4면목간	공문서

- 3) 윤선태,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이야기』 (서울: 주류성, 2007), 74-77.
- 4) 이용현, 『韓國木簡基礎研究』 (서울: 신서원, 2006), 8.
- 5) 이경섭, 『신라 목간의 세계』 (서울: 경기문화사, 21-27.
- 6) 전덕재,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자의 검토,” 『목간과문자』 제3집(2009. 6), 57.
- 7) 윤선태,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와 종류,” 『역사와현실』 제65집(2007. 9), 178.
- 8) 윤선태가 분류한 문서목간 중에서 행정처리의 메모나 발췌용으로 사용한 목간을 ‘기록간’이라 명명하였는데, 이는 기록의 극히 일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부적절한 명칭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의 기록간으로 지칭한 목간을 ‘초고 기록목간’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연번	대분류	목간명 (번호)	출토지	크기[cm] (길이*너비*두께)	목간의 형태	용도	
10		118번	이성산성	15.0*1.3*0.9	4면목간	공문서	
11		4호	복암리	60.7*5.0*0.5	세장형	공문서	
12		305번	능산리	12.7*3.0*1.1	세장형	서간	
13		422번	구아리	25.2*3.5*0.3	세장형	서간	
14	장부	1번	황남동	17.5*2.0*0.6	세장형	곡식출납	
15		2번	376번지	4.5*1.8*0.6	과편	곡식출납	
16		151번	월성해자	25.0*1.4*1.3	4면목간	수취관계기록	
17		157번		18.0*2.5*0.4	방형	인명부	
18		2002-1번	능산리	44.0*2.0*2.0	4면목간	식량 지급	
19		1번	쌍북리 280-5번지	29.1*4.2*0.4	세장형	식량 대부	
20		295번	궁남지	35.0*4.5*1.0	세장형	호적/재산	
21		2호	복암리	28.1*5.0*0.3	세장형	인명부	
22		5호		18.5*2.7*0.6	세장형	촌락문서	
23			경산 소월리 출토 목간		74.2(길이)	원주형	촌락문서
24		초고 기록 목간	186번	안압지	17.7*4.2*0.5	세장형	문호
25			198번		30.8*3.9*2.6	세장형	처방전
26			167번	월성해자	15.0*2.2*1.3	4면목간	처방전
27	299번		능산리	15.3*1.8*0.2	세장형	인명부/주술	
28	304번			13.0*3.5*0.5	세장형	출석명부	
29	2호		궁남지	25.5*2.0*0.5	세장형	전공기록	
30	1호		동남리	26.5*2.1*0.6	부찰형	판결문	
31	1호		복암리	8.3*4.2*0.8	세장형	보고문	
32	3호			24.8*4.5*0.5	기타(주격)	보고문	
33			C목간	쌍북리 328-2번지	30.1*5.5*1.4	판형	구구표

### 2.1.1 수발문서 목간

가장 먼저 살펴볼 문서목간은 기관과 기관 혹은 개인과 기관 사이에서 주고받은 수발 문서목간으로 그중에서도 고대국가의 문서행정을 엿볼 수 있는 공문서 양식의 목간이다. 문서행정이란 국가의 행정이 구두를 통해서가 아닌 문서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국가행정시스템을 일컫는다. 문자를 포함한 기록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구두로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명령을 하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고대국가가 중앙집권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자료와 연구로 대표적인 월성해자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왕궁이 위치하는 곳으로 신라 왕경인의 문화와 생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꾸준한 발굴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특히 1985년 9월부터 1989년 12월까지의 발굴조사에서 25점의 목간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149번 목간은 1986년 4월 26일 갯벌 층위에서 발굴되었는데, 목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월성해자 149번 목간(좌)과 적외선 사진(우)

목간의 크기는 길이 19.0cm, 너비 0.7~1.2cm, 두께 0.9~1.2cm의 사면 목서목간으로 결실부위가 없는 형태적으로 온전한 완형 목간으로 여기에 쓰인 목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기승의 판독9)>

- 제1면 大 [烏/鳥] 知郎足下万 [拜/引/行] 白 [ | /之/了/々]
- 제2면 經中入用思買白不 [雖/雖] 紙一二 [斤/个/个]
- 제3면 牒垂賜教在之後事者命盡
- 제4면 使內

<권인한의 해석10)>

- 제1면 大鳥知郎 足下께 萬拜하고 아뢰니다.
- 제2면 經에 들어올 생각으로 白不雖紙 한두 个(个)를 사라는
- 제3면 牒을 내리신 教가 있었습니다. 뒷일은 命대로 다하였습니다.
- 제4면 부림 받은 바를 합당하게 처리하였습니다.

<三上喜孝의 판독>

- 제1면 牒垂賜教在之後事者命盡
- 제2면 經中入用思買白不雖紙一二斤
- 제3면 大鳥知郎足下万引白了
- 제4면 使內

9) 홍기승(2013)은 월성해자 149호 목간의 판독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였으며, [ ] 안의 글자는 판독상이건이 있는 글자이다.  
 10) 권인한, “목간을 통해서 본 신라 사경소의 풍경,” 『진단학보』 제119집(2013. 12), 200.

본 목간의 표기와 해석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李成市(2005)<sup>11)</sup>와 三上喜孝(2006)<sup>12)</sup>는 ‘牒’자가 서사된 제3면을 중심으로 발신 ‘万引’이 상급 ‘大鳥知郎’ 개인에게 보낸 牒 양식의 문서목간으로 규정하였다. 대체로 현재 학계에서는 ‘大鳥知郎’을 1면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확실한 점은 이 목간이 목간의 작성자가 수신자인 ‘大鳥知郎’에게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문서목간이라는 점이다. 목간의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이 목간을 작성한 주체는 ‘經中入用思買白不雖紙一二斤 ; 사경에 사용할 종이를 한 두근 사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은 인물이고, 명령을 확실하게 처리한 후 ‘大鳥知郎’이라는 인물에게 경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기록 매체 발달과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당시 6~7세기 신라시대에는 불교경전을 종이에 필사하였고, 사경을 작성하는 데 白不雖紙(도침 가공이 되어있지 않은 종이)를 구입하였으며 이미 종이가 서사재료로써 사용되는데, 수·발신문서로써 목간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유물에 의하면 7세기경의 종이에 쓴 다라니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경전 등은 종이를 사용했고 일상에서 주고받은 문서들은 나무 즉 목간 등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목간의 역할이 종이 서사시대에도 그 기능을 잃지 않고 紙木併用期를 함께 이끌어가던 서사재료로서 활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종기와 목간 내지 죽간과 함께 사용된 현상은 중국의 한서예문지 등에서 책을 헤아리는 단위에 ‘冊, 卷’이 함께 나타나 이때 卷은 비단 또는 종기로 추정되고 있다.

### 2.1.2 장부목간

장부형태의 문서목간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사재료의 발전 단계를 검토해볼 때,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사용했던 목간은 다양한 형식의 문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목간은 점차적으로 종이가 보급됨에 따라 사용이 줄어들고 지목병용기에 이르러 그 역할은 주로 물품 등에 부착하는 꼬리표나 메모 등의 역할로 축소되었다. 수취관계기록이나 인명부, 식량지급과 대부, 촌락문서 등의 기록 자료들을 남기고 있다. 그 예로 궁남지 295번 목간의 경우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1995년 궁남지 조사에서 백제 유물들과 함께 출토되었다.

11) 李成市, “朝鮮の文書行政,” 『文字と古代日本2-文字による交流』(東京: 吉川弘文館, 2005), 172.

12) 三上喜孝, “일본 고대 목간의 계보; 한국 출토 목간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목간과문자』 창간호(2008. 6), 222.



<그림 2> 궁남지 295번 목간(좌)과 적외선 사진(우)

목간의 길이는 길이 35.0cm, 너비 4.5cm, 두께 1.0cm의 세장형목간으로 특별히 결실된 부위가 없이 완형의 목간으로 날붙이를 이용해 잘 다듬은 형태로 모서리도 둥글게 마감되어 있다. 양면에 걸쳐 묵서되어 있으며 내용과 판독은 다음과 같다.

<기경량의 판독과 해석<sup>13)</sup>>

전면 西十丁<sup>14)</sup> 口夷

후면 西口後巷 已達巴斯丁 依活干口畑丁

婦人 中口四 小口二 邁羅城 法利源 水田 五形

전면 西10丁 口夷

후면 西口後巷 已達已는 斯丁이고, 依活干口은 畑丁이다

婦人 中口4명 小口2명 邁羅城 法利源 수전 5形

기록의 내용 중 婦人은 신라나 고구려 등에서 유이민을 지칭하는 단어로 추정되며, 인원을 연령에 따라 中口, 小口로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邁羅城 法利源이라는 지명으로 보이고, 水田은 논을 의미하며 形은 논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추정된다.

본 목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본 목간이 당시의 인구 편제 상황 및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있는 장부목간이라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현재까지 발견된 이러한 목간들은 기록학적 측면이나 고문서학 측면에서 보면 수취, 발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작성일이 없는 불완전한 문서이지만 당시의 기록문화를 통하여 생활상은

13) 기경량, “扶餘 宮南池 출토 목간의 새로운 판독과 이해,” 『목간과문자』 제13집(2014. 12), 120.

14) 편철용 구멍을 기호 ‘◎’로 나타내었다.

물론 기록 행정자료의 기능과 역할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목간이 어떤 방식과 제도 등으로 보관되고 이용되었는지 알 수 없고 현재로서는 판독과 사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기록물이라는 관점에서도 다른 관련된 기록들과 계층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 2.1.3 초고 기록목간

기록학에서 정의하는 “기록”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이나 업무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로서, 일정한 내용·구조·맥락을 가진 것”<sup>15)</sup>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초고 기록목간의 “기록”과는 의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서 기록목간이란 공식적으로 사용되거나, 접수된 문서가 아니라 실제 문서를 작성하기 전의 예행연습 또는 메모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폐기된 목간을 뜻한다. 초고 기록목간은 단순히 글자 연습을 하기 위해 작성한 翫書木簡<sup>16)</sup>과도 다른 양상을 보이며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적 가치가 높은 사료로 평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초고 기록목간으로는 처방전 및 출석명부를 포함하여 판결문 및 보고문 형식이 있으며, 구구단이 적힌 목간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2011년 한국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쌍북리 328-2번지 유적 발굴조사에서 구구단이 적힌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목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sup>17)</sup>



<그림 3> 쌍북리 328-2번지 목간(좌)과 적외선 사진(우)

15)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2008), 48.

16) 단순히 글자연습을 하기 위해 작성한 것.

17) 손환일, “百濟 九九段의 記錄體系와 書體 ; <夫餘雙北里出土九九段木簡>과 <傳大田月平洞山城收拾九九段蓋瓦>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 제33집(2016. 6), 49.

목간의 크기는 길이 30.1cm, 너비 5.5cm, 두께 1.4cm의 얇은 판형의 목간으로 하단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刀身 형태와 유사하다.

내용은 전면에 六九五十四, 七九六十三, 八九七十二, 九〃八十一을 포함한 8단과 후면에 五九卅五, 四九卅六, 三九卅七, 二九十八의 4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간에 7개의 가로선을 그어 8개의 단을 나누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림차순으로 식을 작성하였다. 전면과 후면의 내용이 이어지도록 작성하였으며 대각선으로도 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 서사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문서의 내용상 기록하지 않아도 유추할 수 있는 1단의 기재를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숫자의 경우 중문부호를 사용하여 서사면을 절약하거나 중복 필사의 수고를 덜고 있다. 즉 목간을 통해 당시의 백제시대의 산수에 관한 관념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우 세련된 형태의 구구단표를 활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2.2 색인목간

한국에서 출토된 목간 중 오늘날의 색인 역할을 한 문서표지 목간과 제첨축 목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색인(索引, index)이란 “본문의 주요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목을 선정하고 조직적으로 배열하여 그 해당 페이지를 일일이 나타낸 것”을 말하는데,<sup>18)</sup>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색인은 원하는 정보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한 검색도구라는 점이다.

목간에서 색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문서표지 목간과 제첨식 꼬리표 목간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색인 기능의 발전은 이후 책자형태의 고서에서 版面 중 광곽의 왼쪽 위 바깥에 ‘書耳’ 또는 ‘耳題’를 새겨 篇章의 표제를 나타내는 용도 역시 같은 색인의 기능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의 검색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전체 주제를 四部로 구분하고 표지 색을 달리하고 권자본 축의 재료와 색을 달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목간 하나 하나는 각기의 용도를 지닌 일종의 문서 역할을 하는 반면, 색인목간의 경우에는 자료의 색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색인목간이 지칭하는 대상을 필요로 하게 되며, 다른 문서나 전적, 혹은 여러 가지 내용을 지닌 텍스트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색인목간의 발전은 그 당시 사람들의 향유했던 문자문화와 자료의 분류 체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결국 색인 목간의 존재는 목간의 집합체(Collection)가 많았다는 증거이며 문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 한, 중, 일 동양 삼국에서 같은 양식으로 출현되고

18) 서지학개론 편찬위원회, 『서지학개론』 (과주: 한울, 2004), 77.

있다는 점에서 사례가 많은 중국의 재료나 양식에 의하여 한국의 삼국시대 문서관리 역시 같은 범주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2.2.1 문서표지 목간

동양에서 문자가 발생한 초기 龜甲獸骨 등에 새기거나 썼던 것들은 글자가 하나의 물건에 속하게 되는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 인지가 발달하면서 저술이 이루어지자 우리는 그것을 쓰는 대상물로 죽간목독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거기다 저술한 내용을 체계 있게 써서 編綴하여 사용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連綴한 모양을 보고 만든 문자가 바로 <冊>이라는 글자이므로 책의 기원을 편철해서 사용한 죽간, 목독에 두는 것이 학계의 통념이다.<sup>19)</sup>

간독을 엮는 방법에는 橫連式과 重積式의 두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다. 횡련식은 가볍고 작은 간독인 경우 댓발을 엮듯이 위아래를 옆으로 잇달아 끈으로 엮은 것을 말한다. 반면 중적식은 폭이 넓고 큰 목독인 경우 위쪽에 한 개의 구멍을 뚫어 끝으로 꿰뚫어 거듭 쌓아올리는 상태로 엮은 것이다. 이 때 끝으로 엮은 ‘한 策’을 ‘一編’이라 하며, 그 끝이 絹絲인 경우는 絲編, 韋, 즉 부드럽게 다룬 가죽끈일 경우를 韋編이라 하였다. 『史記』 『공자세가』에 나오는 ‘三經韋編’ 또는 ‘韋編三絶’은 바로 『주역』, 『서경』, 『시경』의 삼경이 가죽 끈으로 엮어졌음을 말하고, 공자가 말년에 『주역』을 탐독하여 가죽 끈이 세 차례나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20)</sup>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간책은 날개의 죽간 여러 개를 끈으로 엮은 것을 의미하는데 가로로 길이가 증가하다 보니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두루마리 형태로 말아 두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피가 크고 무거워 이용과 보관 등에 불편하다는 단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북송 초까지 위의 두루마리 방식을 종이나 견과 같은 새로운 서사재료에 맞추어 장정의 형태를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두루마리의 장정 형태를 卷子本 혹은 卷軸裝이라 부른다.

권축장은 종이 또는 비단을 길게 이어 왼쪽 맨 끝 또는 시작점에 가늘고 둥근 축을 붙이고 오른쪽 맨 끝 또는 마지막에 끈이 달린 대나무를 붙인 형태이다. 그리고 이를 보관할 때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축의 아래쪽 끝에 서명과 권차를 넣은 꼬리표를 매달아 놓았다.<sup>21)</sup> 이를 題籤, 즉 꼬리표 목간이라 부른다. 꼬리표 목간은 이러한 제침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문서표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한국에서 출토된 예로는 2003년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관북리 285번 목간<sup>22)</sup>이 있다.

19) 천혜봉,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1997), 81.

20) 천혜봉(1997), 86-87.

21) 천혜봉(1997), 103.

2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3年譜』 (서울: 예맥, 2003), 35-36.



<그림 4> 관북리 285번 목간(좌)과 적외선 사진(우)

<그림 5> 漢代의 牒

<그림 4>의 목간은 길이 12.2cm, 너비 4.2cm, 두께 0.2cm의 2면 목서 목간으로 하단부가 결실된 형태로 발견되었다. 관북리 285번 목간은 중국 漢代 편철 목간의 표지로 사용했던 <그림 5>의 木牒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목간으로 동일하게 상단의 끈을 매는 구멍 부분이 파괴되어 있다. 하단부의 모습은 알 수 없으나 상단부가 매우 매끄러운 호형으로 다듬어져 있는데 매우 공들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관북리 목간에 나타난 목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선태의 판독<sup>23)</sup>>

후면 中方向  $\square \begin{matrix} + \\ \square \end{matrix} \times$  (이하 결실)

전면 二月十一月兵与記  $\times$  (이하 결실)<sup>24)</sup>

목간 후면에 나타나는 ‘中方’이라는 글자를 통해 본 목간을 취급했던 기관명을 유추할 수 있고 전면에 나타나는 ‘兵与記’라는 명칭은 중앙으로 보낸 병기 분여에 관한 기록일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즉 ‘中方’이라는 기관에서 취급을 하는 ‘兵与記’의 2월부터 11월까지의 기록을 하나로 정리한 뒤 본 목간을 표지로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2.2 題籤軸 목간

제침축 목간은 제침과 권축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목간을 말한다. 또 일본에서는 형태에

23) 윤선태(2007), 167.

24) 목서의 내용으로 볼 때, 후면과 전면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후면의 내용이 大字로 쓰여 있고, 아래 부분에 細字로 부기가 되어있는데 내용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전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침축과 목침축<sup>25)</sup>으로 구분하였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목침축의 발견 사례는 없다. 제침축은 나무를 가공할 때 아랫부분은 가늘고 얇게 깎아내고 위쪽 머리 부분은 대개 직사각형의 단책 형태로 만든다. 목침축은 원주 형태로 목구 부분에 표제나 내용을 기록하였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제침축의 형태와 용도가 분명한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한국에서는 2002년부터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함안 성산산성에서의 발굴조사 과정<sup>26)</sup>에서 다량(총 23점)의 제침축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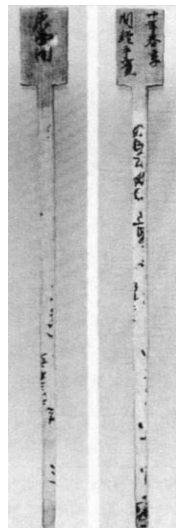
중국 거연에서 출토된 <그림 7>의 목간에는 2행의 목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神爵三年閏月丙申朔己未甲渠候□□□□□□□□ / 第卅三隊長張德自言閏月丁未奉未得□□□□□□<sup>27)</sup>’이라고 기재되었다. 이것은 문서간으로 사용된 후 제침축으로 재가공된 형태로 보여지듯 정연하게 다듬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8>은 오른쪽 사진이 전면으로 전면에는 ‘卅十年春季間經手實’이라는 글자가, 왼쪽 사진인 후면에는 ‘東西同’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 제침축의 경우는 寫經 관련 수실계문의 제침축으로 사용된 것으로 제침축으로 사용되기 이전 다른 용도의 목간으로 사용되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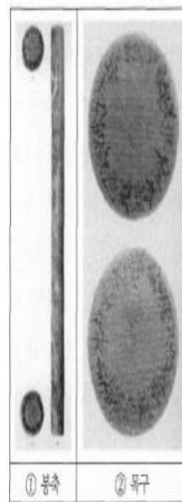
<그림 6>  
돈황 출토 목간



<그림 7>  
거연 출토 목간



<그림 8>  
정창원 소재 제침축



<그림 9>  
정창원 소재 목침축



<그림 10>  
성산산성출토  
297 제침축

25) 일본에서는 ‘棒軸’이라고도 한다.

26)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2002년(7차) 조사에서 7점이 출토되었고, 2006~2009년(11~14차) 조사에서 9점이 확인되었다. 2010~2012년(15~16차) 조사에서 7점이 확인되었다.

27) 판독은 감숙성문물고고연구소 감숙성박물관, 궁국문물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연사사연구소 편, 『1994 거연신간 감거후관』 상, 중화서국, 153.

즉, 문서표지 목간과 제침축의 존재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권자본 형태의 전적과 문서류를 보관하고 검색하는데 용이하게 사용되었으며, 자료의 명칭과 서지사항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목간에 목서를 기입함으로써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색인 도구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독이 문서로서의 역할은 물론 물품의 부찰에 이어 책서의 간독 표지, 또는 종이문서의 문서축으로까지 사용되는 등 시기적으로 복합적인 용도를 거치면서 제침축이 출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문서목간의 메타데이터 분석

이번 연구조사의 대상이 된(33건) 문서목간들의 메타데이터들은 주로 인명, 지명, 물품명과 수량, 날짜명, 관직명, 이두표기 등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첫째, 문서목간에 기재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인명과 지명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물품명(종이, 곡물, 향아리, 농경지, 약재, 소금 등)과 연도명도 함께 나타났다. 특히 연도명의 경우 연호는 목간의 제작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으로 2점의 목간에서 확인되었다.

둘째, 그동안 삼국시대에 사용되었던 관직명을 금석문과 고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한국의 출토 목간을 통해서도 기존의 관직명과 새로운 관직명이 함께 확인되었다.

셋째, 실제 문서형식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이두 표기를 문서목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문서목간의 종류를 수발 문서목간, 장부목간, 초고 기록목간으로 나누었는데, 용도적인 측면에서 수발 문서목간은 공문서와 서간 형태의 사문서로 세분될 수 있다. 장부목간의 종류는 곡식의 출납을 기록한 장부, 인명을 기록한 장부, 곡식의 대부사실을 기록한 장부, 재산을 기록한 촌락문서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정식 문서를 제작하기 전 메모한 것으로 보이는 초고 기록목간에서도 처방전, 출석명부, 전공의 기록, 판결문, 보고문 양식, 구구단표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문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다양한 형식, 형태의 목간이지만 그 기록내용을 미루어 추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영역별로 구분하면 문헌의 저자사항, 발행사항에 해당하는 기록과 기록물의 수록내용과 더불어 표기에 관련된 당시 서술체계 즉 이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 분석결과의 예시

개인 기관 단체명	洗宅, 二典, 思林, 大鳥知郎, 寺典, 大宮土, 居生 등				
지명 및 시설명	眞乃減村, 南漢城, 須城, 下椋, 仲椋, 白品鄒上里 등				
물품명과 수량	白不雖紙 一二个, 食 廿三ノ口, 瓮 卅四斗, 麥田 一形半, 大黃 一兩 등				
날짜명	戊辰年 正月十二日, 戊寅年 六月中, 十一月廿七日 등				
관직명	典太等, 上干支, 及伐尺, 村主, 佐官, 對德, 奈率 등				
이두 표기	敎事	이산스	-이읍신 일	월성해자 153번 목간	典太等敎事 전태등이 내리신 일
			-하읍신 일	동남리 1호 목간	害爲敎事 害하라 명하신 일
爲	호	-하고 (과생접사)			害爲 害하라

#### 4. 서지자료로서의 논어 목간과 논어 죽간

##### 4.1 논어 목간

본 장에서는 한국에서 출토된 논어 목간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논어』는 공자와 그 제자 사이의 문답, 또는 공자와 왕래했던 당시 사람들과의 언행을 수록한 유학 경전으로 12세기 말 朱熹에 의해 정리되어 중국을 비롯한 동양 유교문화권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서적이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논어』가 목간 형태로도 존재하였으며, 한·중·일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된 목간 중 유일한 서적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발견된 목간은 형태적으로 모두 다면목간이며, 내용적으로는 모두 『논어』의 구절이 묵서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출토된 논어 목간은 총 3점이며 그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한국의 논어 목간 출토 현황

	김해 봉황동	인천 계양산성	부여 쌍북리 56번지
분류	목간	목간	목간
형식	다면목간	다면목간	다면목간
서사면	4면	5면	4면
내용	『論語』公冶長篇	『論語』公冶長篇	『論語』學而篇
전체 문자수 (추정)	76~91자	71~76자	52자
발굴년도	2001년	2006년	2016
목간연대추정	6~8세기	4~5세기	6~7세기

뒤에서 다시 후술하게 되겠지만 기원전 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논어 죽간 또한 평양의 정백동에서 출토되었다. 이 자료가 비록 한나라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우리 강 유역에서의 지식인 계층이 어떻게 학습하고 교육하였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사료라 하겠다. 고구려는 이미 372년 불교 수용 이후 대학을 설립하여 5세기에는 학습교재로 五經이 들어와 독서한 내용이 보이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서와 제자서 등 중국의 많은 서적이 유통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고구려는 물론 백제와 신라의 국학에서도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학습한 기록이 있으므로 각 나라의 교육적 분위기를 뒷받침 해주는 단서가 이 논어 목간들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발견된 논어 목간의 추정연대는 6~8세기로 국학이 설치된 682년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며 국학에 관련된 기록이 있는 『三國史記』 권38 雜誌第7의 職官上에 수록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면 國學은 예부에 속하였는데 신문왕 2년에 설치한 것으로 경덕왕 때 그 명칭을 태학감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이전 명칭으로 회복시켰다. 그 규정에 대한 기록 중 교수하는 방법은 『周易』, 『尙書』, 『毛詩』, 『禮記』, 『春秋左氏傳』, 『文選』으로 구분하여 과정을 삼았으며, 박사와 조교 1명이 『예기』, 『주역』, 『논어』, 『효경』을 가르치거나, 혹은 『춘추좌씨전』, 『모시』, 『논어』, 『효경』을 가르치거나, 혹은 『상서』, 『논어』, 『효경』, 『문선』을 가르쳤다.

모든 학생들이 독서함에 있어서, 3품출신으로 『춘추좌씨전』을 읽고, 『예기』나 『문선』의 뜻을 통달하고 동시에 『논어』, 『효경』에 밝은 자는 상급이 되고, 『곡례』, 『논어』, 『효경』을 읽은 사람은 중급이 되었으며, 『곡례』, 『효경』만을 읽은 사람은 하급이 되었다. 즉 『논어』와 『효경』은 함께 필수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상, 중, 하 평가에서 상과 중의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논어가 필수적이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논어가 목간으로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논어 목간의 용도와 기능에 대해서는 習書 또는 暗誦用 등 여러 견해가 있다.

여기에 논어 목간 3건이 모두 「공야장편」 혹은 「학이편」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學而篇』은 16장으로 되어있는데 송나라 주자가 학문에 관한 논의와 공자의 근본 사상에 대한立言이 많다고 했으며 학이편을 우선적으로 습득하면 2편부터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公治長』은 문인 및 고금의 인물을 평가한 부분으로 공자가 제자들의 顯否와 得失을 논한 것이다. 편명은 첫머리에 나오는 공자의 제자인 공야장의 이름을 따서 공야장으로 하였고 모두 28장으로 되어있다. 당시 전래된 『논어』, 『천자문』이 종이, 비단으로 된 권자본인지 죽간이나 목간이었는지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다.

논어에서 실질적으로 제1 편이 「학이편」이므로 처음부터 책을 쓰기 시작한다면 가장 많은 분량이 남아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야장편」의 경우 당시 유행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출토의 목간들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서사한 논어 목간이 발견되고 있어 주목된다.<sup>28)</sup> 특히

28) 平川 南 編, 『古代日本と古代朝鮮の文字文化交流』 (東京: 大修館書店, 2012).

일본과 관련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405년에 왕인이 논어와 천자문을 전하였고 일본의 『古事記』에 나오는 10권의 논어는 원본이 아니라 주해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sup>29)</sup> 이러한 공통점은 삼국이 통일된 7세기를 전후한 동아시아에서 학습용으로 널리 유행한 『논어』를 통해 서적유통사의 한 단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 4.1.1 김해 봉황동 출토

김해 봉황동 다면 목간은 한국에서 출토된 논어 목간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목간이다. 4면 모두 목서가 되어있으며, 목흔의 보존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글자를 식별하기가 용이하다.

봉황동 목간의 형태적 특성을 정리하면 첫째, 한 개의 목간이 한 개의 용도를 가지는 단독간이며, 같은 수종의 나무를 가공하여 일정한 너비와 길이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목간의 잔존 길이는 20.6cm며, 너비는 좁은 곳이 1.5cm, 넓은 곳은 2.1cm 정도로 단면이 정사각형에 가까우며 4면에 걸쳐 목서된 ‘觚’형태의 목간이다.<sup>30)</sup>

둘째, 완전한 형태의 목간이 아니라 상·하단 부분이 결실된 형태의 목간으로 원래 길이는 더 길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표면이 예리한 날붙이 따위에 도려내져 있다.



<그림 11> 김해 봉황동 목간의 모습

봉황동 목간에 나타나는 표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내용은 4면 모두 논어의 「公治長編」으로

29) 이미 중국에서 논어의 주해본은 3세기 말에서 4세기에 이르는 동안 『古論語』, 『齊論語』을 비롯하여 『論語集解』 등이 저술되었기 때문이다.

30) 釜山大學校博物館, 『김해 봉황동 저습지유적』(2007), 52.

주석뿐만 아니라 본문도 수록되어 있다. 텍스트의 특징으로는 I 면의 7번째 글자인 ‘我’와 8번째 글자인 ‘毋’ 사이에 ‘也’자가 빠져있는 점과 II 면의 9번째 글자인 ‘子’와 10번째 글자인 ‘道’ 사이에 ‘之’자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사가 탈락되는 서술상의 특징은 중국 남북조시대의 북조계의 텍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sup>31)</sup>

둘째, 약자의 표기가 나타나는데, 목간 I 면 11번째 글자인 ‘無’가 ‘无’로 되어있는 것은 정창원의 신라촌락문서 등에도 보이는 특징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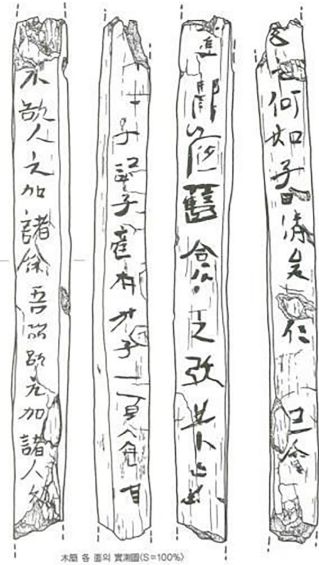
<그림 12>  
봉황동 목간 ‘无’



<그림 13>  
봉황동 목간 적외선 사진 ‘无’



<그림 14>  
일본 정창원 신라문서 ‘无’



<그림 15> 봉황동 목간의 실측도

셋째, 글자가 전반적으로 반듯하게 쓰였고 문자의 크기나 배열이 일정하며 하나의 면에 13자 내지 15자로 되어있다.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제작한 실측도<sup>32)</sup>를 바탕으로 봉황동 목간의 자수를

31) 橋本繁, 『韓國古代木簡の研究』(東京: 吉川弘文館, 2014), 128.

32) 釜山大學校博物館(2007), 55.

분석한 다음 원문을 복원한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봉황동 목간의 복원

순서	본문	전체 자수	내용 (공야장편)
I면	(者或對申根子曰根也慾焉得剛子貢曰我)不欲人之加諸我吾亦欲无加諸人 子(曰賜也非爾所及也子貢曰夫子之文章可得而聞也夫子之言性與天道而聞也 子路有聞未之能行唯恐有聞子貢問曰孔文子何以謂)	86 (15)	11-15장
II면	(之文也子曰敏而好學不恥下問是以謂之囹圄子謂子產有君子道四焉其行 己也恭其事上也敬其養民也惠其使民也義子曰晏平仲善與人交久而敬之子曰臧 文仲居蔡山節藻稅何如其知也子)	79 (11)	15-17장
III면	(張問曰令尹子文三仕爲令尹無喜色)三已之無舊令尹之改必以告新令(尹 何如子曰忠矣曰未知曰仁矣乎焉得仁崔子弑齊君陳文子有馬十乘棄而違之至於 他邦則曰猶吾大夫崔子也違)	76 (14)	18장
IV면	(之之一邦則曰猶吾大夫崔子也)違之何如子曰清矣曰仁矣乎曰未知(焉得 仁季文子三思而後行子聞之曰再斯可矣子曰甯武子邦有道則知邦無道則愚其知 可及也其愚不可及也子在陳曰歸與歸)	81 (15)	18-21장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의 면에 하나의 장의 내용을 종결시키는 I ~ II면과는 달리 『公治長編』 18장과 같이 내용이 방대한 경우 III면에 전부 서사하지 않고 IV면으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만약 이 목간 하나에 『공야장편』의 내용을 전부 서사한다고 가정한다면, I면의 첫 글자 ‘不’자부터 II면의 첫 글자 ‘□’자까지가 91자이고 II면의 첫 글자 ‘□’자부터 III면의 첫 글자 ‘三’자까지가 78자, III면의 첫 글자 ‘三’자부터 IV면의 첫 글자 ‘違’자까지가 76자이다.<sup>33)</sup>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일정한 간격을 보인다. 따라서 목간의 원형은 텍스트를 발췌하여 적은 것이 아니라 『論語』 본문을 충실하게 필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산한 문자수는 하나의 면의 전체 문자수로 볼 수 있다. 최대 91자가 쓰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현재 목간의 글자 수인 13자 내지 15자의 6, 7배가 된다. 즉, 원래의 형태를 추정하여 복원했을 경우 원형의 길이는 현재 길이인 20.9cm의 6배가 되는 125.4cm 이상, 7배인 146.3cm 이하의 비정상적으로 긴 목간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것은 글자 수만으로 추정한 길이이며 만약 상·하단에 여백이 존재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길이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서체는 대체적으로 해서체로 되어있고 일부는 행서풍의 서체를 보이고 있다. 특히 I면에 있는 ‘欲’자의 ‘谷’부분의 쓰는 방식이 특징적이다.

33) 橋本繁, 『韓國古代木簡の研究』(東京: 吉川弘文館, 2014), 129.



<그림 16> 봉황동 목간 '欲'



<그림 17> 봉황동 목간 적외선 사진 '欲'

#### 4.1.2 인천 계양산성 출토

계양산성 유적에서 발굴된 목간 I의 크기는 13.8cm이며, 지름은 2.0cm 정도의 크기로 소나무를 가공해 5면으로 만든 다면 목간이다. 목간 II는 크기 49.3cm이며 너비 2.5cm의 4각형의 목간으로 목간 I과 같이 한 면에 목서가 되어있으나, 식별이 불가능해<sup>34)</sup> 논어 목간으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목간 I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계양산성 목간의 형태적 특징을 정리하면 먼저, <그림 18>에서 알 수 있듯이 5면에 걸쳐 서사된 다면목간으로 김해 봉황동 출토 목간과 같은 觚 형태의 목간이다. 완전체 형태의 목간이 아니라 상·하단부가 결실되어 있으며 상·하단 단면의 모양을 미루어보아 온전한 형태의 목간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각 면의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데 상단부에서 보면 I면이 15.9mm, II면이 18.5mm, III면이 11.9mm, IV면이 18.7mm, V면이 14.0mm로 일정하지 않으며 가장 너비가 좁은 III면과 가장 너비가 넓은 IV면이 6.8mm나 차이가 난다.



<그림 18> 인천 계양산성 출토 목간 I의 모습



<그림 19> 목간 II의 모습

34) 선문대학교고고연구소, 『계양산성: 발굴조사보고서』(2008), 270에 따르면 목서가 되어 있는 부분은 4면 중 1면이고 목서된 글자 가운데 식별이 가능한 글자는 '子' 한 글자이다.



특히 이 목간의 서체는 사경체의 특징을 보인다. 사경체는 해서 필획이 정착하기 전의 필획법이며 예서와 초서의 성격이 나타나며 예서와 초서에서 해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4~5세기에 주로 사용되었다. 목간에 나타난 목서의 필법을 살펴보면 Ⅱ면의 ‘未’의 세로획과 ‘信’의 편방에서 나타나는 현침세<sup>36)</sup>의 필법이 나타난다.<sup>37)</sup>

또한, Ⅰ면의 ‘君’, Ⅱ면의 ‘吾’와 ‘信’, Ⅲ면의 ‘知’, Ⅳ면의 ‘曰’을 살펴보면 ‘口’의 ‘亅’자로 꺾인 곡척법은 거의 직각인데 이는 楷書의 특징이다.

한편, 과법에서는 예서의 과책도 나타나는데, Ⅰ면의 ‘賤’자의 ‘戔’부와 ‘子’, Ⅱ면의 ‘斯’와 ‘能’, Ⅲ면의 ‘不’와 ‘其’와 ‘也’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서의 필획과 결구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필법은 사경체와 관계가 깊으며, 목간이 제작되던 시기가 사경체가 사용되었던 4~5세기와 일치한다면 목간의 서체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다룬 봉황동 논어목간과 마찬가지로 서사면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각 면 사이의 공백이 크게 나타난다. 『公治長編』의 冒頭부터 11장까지 실제로 목간에서 확인된 글자를 추정하여 배치하여 보면 Ⅰ면에서부터 Ⅴ면까지 쓰인 문자가 거의 같은 간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Ⅰ면의 첫 글자인 ‘賤’부터 Ⅱ면의 첫 글자인 ‘吾’까지의 원문의 문자수는 76자이다. Ⅱ면의 첫 글자인 ‘吾’부터 Ⅲ면의 2번째 글자인 ‘不’까지는 71자, Ⅳ면은 유감스럽게도 확인되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Ⅲ면의 6번째 글자인 ‘也’부터 Ⅴ면의 6번째 글자인 ‘子’까지를 계산해 보면 154자이고 이것을 2로 나누면 77자가 된다.

즉, 어떤 면의 문자와 이어지는 면의 같은 위치에 있는 문자 사이의 간격을 계산하면 대략 71~77자 정도가 된다. 발굴보고서의 견해대로,<sup>38)</sup> 『論語』의 적당한 문장을 발췌하여 각 면에 서술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일정한 간격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목간은 『論語』 『공야장편』의 본문 전체를 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목간의 한 개의 면이 원래 71~77자가 쓰인 것으로 가정하고 목간 글자 하나의 길이를 대략 계산해보면 약 17.3mm가 된다. 여기에 한 면의 문자수인 71~77을 곱하면 122.8~133.2cm가 된다. 본 목간 또한 예상되는 복원을 복원해 볼 때 전체 길이가 1m 30cm가 넘는 매우 장대한 목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 4.1.3 부여 쌍북리 56번지 출토

이 목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실시된 부여 쌍북리 56번지 사비한옥마을조성부지의

36) 세로획 맨 위의 기필에서 맨 아래에서 끝나는 수필까지 그대로 죽 내려오는 필법으로 세로획의 끝 부분이 침이 매달린 듯한 느낌이 들도록 뽀족하게 뺀 것을 일컫는다.

37) 선문대학교고고연구소(2008), 270-271.

38) 선문대학교고고연구소(2008), 263.

발굴조사 중 발견되었다.<sup>39)</sup> 부여는 옛 백제 사비시대(538~660)의 수도 지역으로 예로부터 백제 유물이 많이 발견되는 곳인데, 조사가 이루어진 쌍북리 56번지에서도 토기류, 기와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이 중 발견된 목간의 개수는 『論語』 『學而編』 구절이 묵서된 논어목간 1점을 포함하여 총 17점이다.



<그림 21> 부여 쌍북리 출토 논어목간의 모습

쌍북리 유적에서 발굴된 목간의 모습<sup>40)</sup>이다. 목간의 길이는 28.0cm이고, 너비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I, III면이 2.5cm, II, IV면은 1.8cm이다. <그림 21>에서 보듯이 4면으로 이루어진 장방형의 다면목간으로 상단부의 형태는 온전하나, 묵서의 흔적과 하단부의 단면으로 미루어보아 하단부가 결실되어 있다.

쌍북리 목간에 나타나는 표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논어』의 제1 편에 해당하는 『學而編』 제1장과 제2장이 4면에 걸쳐 묵서되어 있으며, 각 면의 자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쌍북리 목간의 자수 분석

순서	본문	자수	비고
I 면	子曰學而時習之 不亦悅□	11	學而篇 1章
II 면	有朋自遠方來不亦樂□	11	學而篇 1章
III 면	人不如□而不慍□不亦□	8	學而篇 1章
IV 면	子乎□有子曰□其人□	7	學而篇 2章

39) 김성식, 한지아, “부여 쌍북리 56번지 사비한옥마을 조성부지 유적 출토 목간,” 『목간과문자』 제21집(2018. 12), 342.

40) 김성식, 한지아(2018),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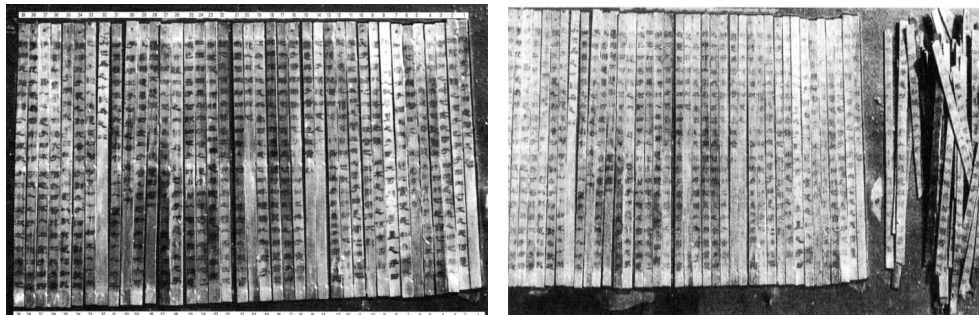
41) 김성식, 한지아(2018), 346에 의하면, ‘習’으로 추정되는 글자 밑에 책받침 ‘宀’이 돌아가는 형식의 글자가 확인되며

지금까지 한국에서 출토된 논어 목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성격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어 목간의 출토된 예는 모두 다면 목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김해 봉황동 목간과 인천 계양산성 목간의 경우, 『논어』의 『公冶長編』 텍스트를 모두 서사하였다고 가정하면 길이 1m가 넘는 장대한 목간이 된다.

둘째, 쌍북리 논어 목간의 경우, 띄어쓰기의 방식이나 묵흔을 볼 때, 백제의 구결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 4.2 논어 죽간

한국 최고의 죽간은 평양에서 발견되었다. 1990년대 초 평양시 낙랑구역 통일거리건설장에서 발굴된 정백동364호분 나무곽 무덤 안에서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 목간과 함께 출토된 논어 죽간은 공식적인 보고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출토 경위를 알 수 없으나 일본 학회지<sup>42)</sup>에 실린 사진과 북한 학자가 발표한 논문<sup>43)</sup>을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논어 죽간에 대한 실물 자료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주어진 정보를 통해 목간이 출토된 경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림 22> 정백동364호분 출토 논어 죽간(좌)과 전체 모습(우)

죽간이 출토된 정백동364호분은 내외 2중 나무곽으로 이루어진 單葬墓인데, 여기에 부장된 유물 중 하나인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에 기록된 연호를 토대로 初元 4年(B.C. 45)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시기에 조성된 樂浪郡府 屬吏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정백동 죽간의 형태적 특성으로는 죽간의 재료가 대나무라는 점과 여러 개의 죽간에 끈을 엮어

---

다른 글자에 비해 크게 적혀있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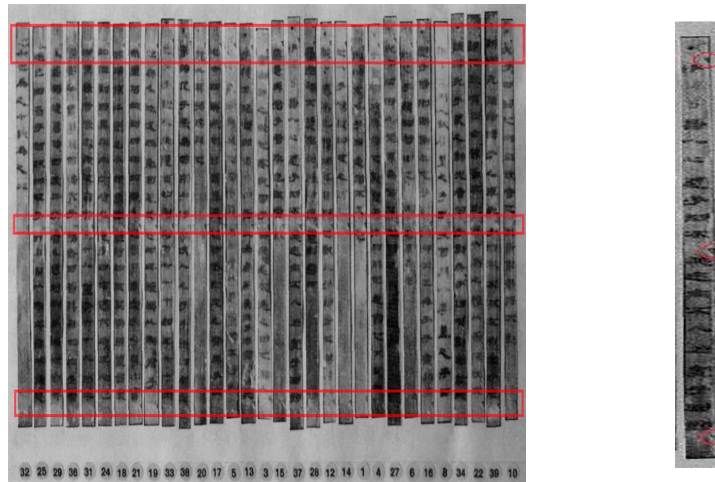
42) 2001년 일본 東京 소재 『高句麗會會報』(63號)에 수록된 죽간 사진과 貞柏364號古墳 출토라는 설명을 통해 논어죽간의 존재를 알 수 있다.

43) 류병홍, “고고학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 『조선고고연구』 제83집(1999), 2.

만든 편철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편철간 형식은 여러 간들을 연결하여 책의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중국 漢代에 주로 사용된 목간의 형태로 일정한 길이<sup>44)</sup>의 대나무를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대나무가 자생하지 않는 평양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였을 경우 생산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출토된 죽간은 한국에서 생산된 죽간이 아니라 중국을 통하여 유입된 죽간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죽간에 끈 따위를 엮기 위하여 만든 契口가 존재한다. 계구란 아래 <그림 23>과 같이 죽간의 양단에 일정한 여백인 天頭와 地脚을 포함한 죽간의 오른쪽 모서리 세 군데에 < 형태로 편철용 끈을 걸기 쉽도록 뚫어 만든 구멍이다.

정백동 죽간의 계구의 모습은 <그림 23>과 같이 계구의 형태와 크기가 제각각이며, 일부는 파손 및 결실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계구의 본래 모습이 가장 양호한 죽간은 簡10과 簡37이다. 부분적으로도 정상적인 계구의 모습이 확인 가능한데, 상부 계구의 모습은 簡18, 簡21을 통해 알 수 있고, 중간 契口는 簡14, 簡28, 簡38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나머지 계구의 형태는 제각각이며 파손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계구가 많다. 이와 같이 죽간의 계구가 닳아 홈이 넓어지거나 부서져있는 모습을 통해 생전에 묘주가 이 죽간을 꾸준히 사용하였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23> 정백동 죽간 계구의 모습(좌)과 확대(우)

계구의 모습이 이렇듯 불규칙한 이유는 소지자가 죽간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끈을 편철해놓은 계구 부분이 장력이 작용하면서 닳거나 끊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백동 죽간에 나타나는 표기의 특징은 먼저 하나의 죽간이 보통 18~20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죽간의 크기가 일정하며, 『論語』를 제작하는 데 있어 일정한 자수를 규칙으로 필사하였

44) 대체로 1尺(23cm)으로 만들어졌다.

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先進編』과 『顏淵編』의 장구가 시작되는 부분의 죽간은 모두 상단에 黑圓點(●)이 찍혀 있다. 이는 각 장구가 시작되는 부분을 원점으로 표시하였으며, 장구가 여백을 두고 종결되었을 경우 여백을 이어서 다음 장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죽간에 서사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죽간은 簡4, 簡7~11, 簡13, 簡16, 簡27, 簡30, 簡34, 簡35, 簡37~39가 있다. 이처럼 장구의 시작을 알 수 있는 원점과 장구의 종결을 의미하는 여백을 통해 정백동 죽간 『論語』의 편장 구성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초간이나 진한 간독에서 흔히 발견되는 서사방법은 동일한 자를 중복해서 쓸 때 반복하여 적지 않고 중문부호(=)를 사용하는 것인데, 평양 논어죽간은 같은 자를 그대로 쓰고 있다. 예를 들어,

● 閔子侍側訢訢如也子□ [行行]如也冉子子貢[衍]□ (簡16)

에서 ‘訢訢’, ‘行行’처럼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것은 이 죽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기적 특징이다.

예를 들어, 定州漢墓 『論語』<sup>45)</sup>에서는 잘못된 글자를 깎아 내고 다시 쓴 흔적을 발견할 수 있지만, 평양 논어 죽간 중 簡3을 살펴보면,

聞斯行之赤也惑敢問子 曰求退故進之由也兼人 (簡3)

‘求’와 ‘退’ 사이에 누락된 ‘也’자가 작은 글자로 추기되어 있다.

## 5. 맺음말

본 연구는 한국에서 출토된 문서목간 및 논어 목간을 기록과 서지자료로서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중국 및 일본과 비교했을 때 현재 한국 출토 목간의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나, 다양한 형태와 분야의 목간이 출현하면서 목간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정보를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문서목간과 색인목간이 기록자료로서의 가치와 의의는 실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초고 목간이나 폐기 전 목간으로 명부, 보고서, 구구단 등 다양한 형식과 주제의 문서로 확인되었다. 이 문서들을 대상으로 향후 DB구축 등 서지 기술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본 결과 인명과 지명, 물품명, 날짜, 관직명, 이두의 표기 등 다채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발굴된 문서의

45) 중국 하북성 定州漢墓에서 출토된 논어 죽간으로 작성 연대가 五鳳 3년(B.C. 55)으로 평양 논어죽간(初元 4년, B.C. 45)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형태와 문자가 비슷하다.

형식이 아닌 책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논어목간과 논어죽간을 통해 그 형태가 한국의 독자적인 다면 목간의 형태로 길이가 1.5m가 넘는 긴 형태이며 용도와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관된 다른 자료의 발굴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평양의 정백동에서 발견된 중국의 죽간 논어는 기원전후에 한반도에서 중국 경전의 유통과 전파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목간의 발굴이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판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의 목간과 앞으로 출토될 목간의 판독이 정밀하게 이루어진다면 문서목간의 종류와 용도는 더욱더 다양하고 세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韓國의 古代木簡』. 서울: 예맥, 2006.
- 권인한. “목간을 통해서 본 신라 사경소의 풍경.” 『진단학보』 제119집(2013. 12). 197-217.
- 김성식, 한지아. “부여 쌍북리 56번지 사비한옥마을 조성부지 유적 출토 목간.” 『목간과문자』 제21집 (2018. 12). 341-353.
- 류병홍. “고고학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 『조선고고연구』 제83집(1999). 2.
- 三上喜孝. “일본 고대 목간의 계보; 한국 출토 목간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목간과문자』 창간호 (2008. 6). 222.
- 윤선태.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와 종류.” 『역사와현실』 제65집(2007. 9). 178.
- 李成市. “朝鮮の文書行政.” 『文字と古代日本2-文字による交流』(東京: 吉川弘文館, 2005). 172.
- 홍기승. “경주 월성해자·안압지 출토 신라목간의 연구동향.” 『목간과문자』 제10집(2013. 6). 95-118.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w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6. *Ancient Wooden Strip with Inscription in Korea*. Seoul: Yemek Press.
- Kwon, In-Han. 2013. “The Scenery of the Silla Period seen through the Wooden-shelf.” *The Chin-Tan Society*, 119: 197-217.
- Yoon, Seon-Tae. 2007. “The Administrative Affairs by Wooden Documents in Paekche Kingdom.”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65: 178.